230㎡ 부스 오케스트라 실황 녹음 가능 작업실·레지던스 갖춰 뮤지션 창작 지원



광주 음악 제작·배급·소비 자생적 시장 형성

내년 사업 지속 예산 확보 절실

29일 개관 기념 피크뮤직페스티벌

광주음악창작소 'PEAK MUSIC' 내일 개관

광주음악창작소 'PEAK MUSIC'이 29일 공식개관한다.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있는 'PEAK MUSIC'은 광주·전남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기반 음악창작소다. 공식 명칭 인 'PEAK MUSIC'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을 의미한다. 'PEAK MUSIC'은 앞으로 '광주 음악'이 교육이 되고 기 획, 제작, 마케팅, 배급, 소비되는 원스톱 음악 공간으로 자생 적 음악시장을 생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 라를 구축한 올해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 댓 뮤직(All That MUSIC)'=광주음악창작소 'PEAK MUSIC'은 콘텐츠산업지원센터 내에 문을 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1차년도의 사업비는 25억원(국비 10억원, 시비 7억원 등)이다.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시설 구축 공사를 진행해 공연장, 녹 음실, 개인연습실, 뮤지션 레지던스, 음악 교육실, 뮤직라운지 등 공간으로 구성됐다.

음반제작을 위한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이 가능한 스튜디 오는 최신식 장비로 채워졌다. 특히 면적 230㎡, 높이 15m에 달하는 대형 녹음부스를 갖추고 있어 오케스트라의 대규모 실 황 녹음, 합창단 녹음 등도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극장식 공연장에서 스탠딩과 좌석 공연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리뉴얼 된 공연장은 약 500여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음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뮤직라운지에는 약 2000장의 음반과 관련 서적, DVD 등이 비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작업

실과 뮤지션 레지던스가 마련돼 있어 별도의 예약 절차를 거 쳐 사용할 수 있다. 광주음악창작소는 지난 5월부터 지역 뮤 지션들을 지원하기 위해 '뮤지션 인큐베이팅' '공연제작지원 사업' '음반제작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위한 '음악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운영예산 확보 관건=광주음악창작소의 올해 사업 은 씨앗을 뿌리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올해는 상당수의 예산을 공간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 등 시설물 구축에 사용했 다. 실제 광주음악창작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2016~2017년을 시스템 정 착기, 2018년부터를 지속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도약기로 계

광주음악창작소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계속 지 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주음악창작소는 내년에 인큐베 이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억~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음악창작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이를 뒷 받침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약속이 없는 상황이다.

◇개관기념 공연=29일 오후 6시부터는 광주음악창작소 야외무대에서 '광주 2015피크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날 공연에는 '페퍼톤즈' '옥상달빛' '쏜애플' '갤러시 익스프 레스'등이 출연하며,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인큐베이팅 을 통해 선발된 5팀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공연은 무

남유진 광주음악창작소 총감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 안인들에게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문을 열어주는 공간으 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54-362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500여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최신식 음향 장비를 갖춘 녹음 부스.

내일 광주G-POP페스티벌

제3회 광주G-POP페스티벌이 29일 오후 2시 광주콘테츠 산업지원센터 영상관(옛 kbs광주방송국)에서 열린다.

행사는 한류 문화를 주도할 실력있는 신진 뮤지션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 준결선을 통해 선정된 10팀이 참여한다. 가요 부문의 김 세희, 신미애. 정희지, 신연지, 김동찬, Three Tone과 밴

또 초대가수로는 광주 출신 홍진영, 투포케이(24K), 워킹 에프터유, 배드큐피드와 지난해 대상수상자인 윤민서양이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등 시상금이 주어지며 (사)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연예인자격증서, (사)한국연예예술인 협회광주전남지회 청소년 예술인 발굴·육성프로그램의 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남공원 5000여명 즐긴 '전우치-판도라의 서'

대한민국 국공립극단페스티벌 참가

9월4일까지 경주서 10개 극단 공연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이 해마다 여름이면 공연하는 '전우치'는 시즌3를 거치 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금남 공원이 라는 야외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한 무대와 다양한 볼거리는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 공연된 '전우치-판도라 의 서' 공연에는 5000여명이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전우치-판도라의 서'가 오는 9월4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국공립극 단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서울, 대구, 경주, 포항, 전주, 경기, 부산, 인천, 목포 등 총 10개의 국공립 극단이 참여 해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로 광주는 재창단 4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광주시립극단은 오는 31일 오후 8시 경주예 술의 전당 분수광장 야외무대에서 공연한다.

'전우치_판도라의 서'는 고전소설 전우치 전을 모티브로 아크로바틱, 액션, 마술, 군무, 음악을 가미한 판타지액션연극으로 신나는 노래와 군무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프리마켓 '박장대소'

내일, 전통놀이 체험·물총 놀이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29 일 오후 1~5시 프리마켓 '博場大笑(박장대 소)'를 개최한다.

'박장대소'는 '박물관 장에서 크게 웃자'라 는의미이다.

이날 프리마켓에서 오후 1시부터 대나무 고리 던지기, 대나무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 이체험이 펼쳐진다. 오후 2시부터는 아이들 과 함께하는 마술공연이 준비돼 있고, 오후 3 시부터는 대나무 물총 만들기와 물총 놀이가 펼쳐진다.

작가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 및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또 어린이, 청소년, 가 족 단위 참가 셀러들이 도서, 장난감, 문구류, 의복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먹을 거리 부스에서는 마카롱, 푸딩, 부각 등이 판

한편 프리마켓 '박장대소'는 오는 9월19일 과 10월17일에도 무료로 열린다. 문의 062-570-7053, 7068. /김경인기자 kki@

광주대 음악학과 '전공자 마스터클래스·힐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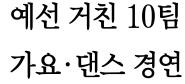
광주대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학과장 김 정아)는 29일 광주대 호심관에서 '음악전공자 를 위한 마스터클래스와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평가해주며 도움말 을 해주는 기존의 마스터클래스 형식에 연습 으로 지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더한 행사다.

장시간의 악기 연습으로 굳은 몸을 풀어주

는 연주자용 운동처방, 심한 무대공포증으로 준비한 만큼의 실력발휘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주전 긴장감 완화 프로그램 등이 준 비되어 있다.

음악학과 교수진과 광주대학교 대학원 음 악치료전공 지도교수, 전문 운동치료가가 함 께 지도한다. 음악을 전공하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 문의 /김미은기자 mekim@ 062-670-2659.



콘텐츠산업지원센터 영상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메인 행사인 경연에는 지난 5월 총 100팀이 참여한 예선

드·댄스 부문의 레이퀸 텟, 로터스, 노이즈 플루션, YGT

여기회 부여 등 여러가지 특전이 부여된다.



